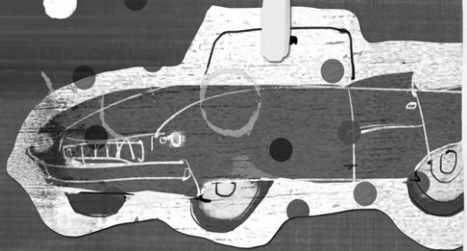


제3장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아동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아동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놀이로 풀어낸다. 이 문제들은 아동의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지만, 아동을 때로시키기도 한다. 또 괴롭히기도 하고, 흥미를 끌기도 하고, 끊임없이 몰두하게 한다. 그것에는 힘에 대한 투쟁, 반복적이며 끝이 없는 이야기들, 이룰 수 없는 바람, 그리고 아직은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될 수도 있다.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아동도 역시 적응적인 전략을 포함하여, 다른 놀이 활동 전략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아동은 창조성의 순조로운 흐름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나 대립은 이야기 속이나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놀이 구조의 영역들 속에서 또는 그 사이에서, 놀이 활동의 세분화된 부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아동의 역량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치료자는 이런 갈등을 중심으로 놀이 활동에서 아동과 만나고, 아동의 정서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Anna Freud(1963)는 강박 신경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6세 아동의 사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아동은 A. Freud에게 왜 자신이 그녀를 만나러 오는지 설명했다. “내 안에 악마가 있어요, 밖으로 꺼낼 수 있나요?” 그녀의 갈등은 더러워지고 싶고, 이기적이고 싶고, 나쁘고, 혐오스럽게 되고 싶은 소망과 좋은 행동을 하라는 부모의 엄격한 기대에 따라야 한다는 소망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긴장이 감소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악마에 대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아동은 거절받고 있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

기 위해 백일몽을 사용한다. 아동과 부모의 조연자인 A. Freud와 함께하면서, 그 증상은 감소한다. 이러한 갈등을 표현하는 내담자들의 집단에서, 아동의 소망은 문화적 요구와 충돌한다. 그 결과 금지된 소망을 억제하게 되고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에, Edward Corrigan과 Pearl-Ellen Gordon(1995)은 갈등으로 인해 증상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아동 내담자 집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아동 내담자들은, 초기의 부모, 자녀 관계가 손상된 다음에는 마음이 안전에 대한 자원이 된다. 8세 사브리나가 이런 아동 중 1명인데, 엄마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신은 생일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친한 친구 중 1명의 생일 파티였으나 초대장을 잃어버려서 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치료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맞아요. 지금 당신은 내가 왜 갈 수 없는지 알고 있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외계인도 없고, 그녀를 벌하는 악마도 없다. 그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엄격한 생각 때문에 그녀는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Kerry Kelly(1970)는 조숙한 5세 엠마에 대해 기술했는데, 그녀는 아기가 되는 놀이를 하면서 계단을 아주 빠르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가는 “조심해, 아기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해.”라고 주의를 주었다. 엠마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들이 조기 종결되게 한다 —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부모가 된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인 욕구들에서 갈등을 느끼는 아동은 부모에게 부적절한 규제와 양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빈약한 양육에 적응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유능감에 매우 빨리 의존하게 된다.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양육을 대신하여 자신의 ‘사고하는 머리’와 지적으로 용감한 행동에 의존하는 조숙한 자기 의존이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조숙한 아동들은 오늘날의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는 아동의 전형이 된다. Corrigan과 Gordon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신데렐라놀이를 하는 6세 릴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나는 16살에 태어났어요, 나는 절대 기저귀도 안차고, 우유병도 안 빨았고, 달래주는 사람도 없었고, 손가락도 안 빨았고, 아기 음식도 안 먹었어요.”라고 말했다.

## 놀이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갈등을 표현하는 전략

아동 놀이치료 척도 매뉴얼(Kernberg, Chazan & Normandin, 1997)에서는 아동이 놀이하는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갈등을 표현하는 전략을 열세 가지로 정의했다. 각각의 전략은 갈등을 표현하는 놀이 행동이라는 보다 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 주지화(Intellectualization)

놀이 활동은 놀이의 정서적인 함의를 중립적, 사실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다.”

### 합리화(Rationalization)

아동은 받아들이기 수는 있으나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치료자에게 놀이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걱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유를 댈 것이다.”

### 고립(Isolation)

놀이 활동에서 생각은 위협적인 정서로부터 분리된다. 그 결과로 종종 아주 냉담해진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나 느낄 수는 없다.”

### 수행과 취소(Doing and Undoing)

놀이 활동은 수행되면서 그다음에는 반대로 되거나 중립적이 된다. 여기에는 똑같거나 반대되는 소망들에 대한 표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놀이 사건의 순환적인 속성 때문에 놀이 사건 속에 마술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놓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치웠다.”

### 부정(Negation)

아동은 놀이 활동에서 관찰되는 위협이 되는 감정이나 행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중요성을 폐기해버린다.

“나는 그것이 대단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억압해놓은 생각과 느낌은 그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반동형성은 고통스런 생각과 정서를 마음속에 담아두게 한다 — 단지 가치만이 뒤바뀐다.

“나는 발생한 일 중에서 오직 즐거운 부분만 경험할 것이다.”

### 억압(Repression)

아동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놀이를 한다(관찰자가 추론을 한다). 놀이가 즐겁게 이루어질 때 억압된 것이 암시된다.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않는다.”

### 투사(Projection)

자기 자신에게서 또한 놀이 등장인물 중 하나에게서 아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또는 대상표상에 대한 특징, 느낌, 소망, 생각들을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로 옮겨놓는다.

“나는 나의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 주입하고 있다.”

### 함입(Introjection)

놀이 활동에서 하나의 등장인물은 대상들과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외부에서부터 가져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어놓는다. 중요한 점은 이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곧이곧대로 듣고, 나 자신 안으로 받아들인다.”

#### 퇴행(Regression)

놀이 활동에서 아동이나 한 등장인물이 좀 더 어린 아동의 행동 양식이나 표현 특성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고 있다.”

#### 신체화(Somatization)

놀이 활동에서 아동이나 한 등장인물의 신체적 증상만 생각하고 있다.

“내 몸이 나에게 호소한다.”

#### 자기 자신에게로 공격성을 돌리는 것(Turning Aggression Against the Self)

아동 또는 1명의 놀이 등장인물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동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종종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나 자신을 때리고 있다.”

#### 회피(Avoidance)

아동은 두려운 사물과 대상을 피한다 — 회피는 빠르고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아동은 두려운 대상, 사람이 자신의 기능을 위협한다고 느끼면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철회한다.

“나는 위험에서 도망치고, 심지어는 그것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 임상 사례 : 조지, 미친 과학자, 그리고 사진기

5세 11개월 된 조지는 엄마 몰래 가게에서 비싸지 않은 놀잇감을 가져온 에피소드가 있는 후 자살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외래 클리닉으로 의뢰되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엄하게 꾸짖으며, 그 가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조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가슴에 대고는, 자신을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다음 주에 조지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부모는 자신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은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조지의 부모는 그를 조숙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 설명하며 놀잇감을 훔치기 전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집에서 놀잇감을 정리할 시간이 되거나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서 나와야 할 때 반항적이 되었다. 그는 제한을 받아서 좌절했을 때 분노 발작을 일으켰다. 유치원에서 그는 학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다. 이 모든 에피소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에 그들은 조지가 놀잇감을 훔친 후로 여러 날 동안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회상했다. 가족력을 통해 조지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났을 때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가족은 미국 밖에서 살았다. 생후 1년 동안 조지는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유년기에 심한 복통이 앓았다. 가족은 아이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엄마는 아기의 울음과 그를 달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에 압도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때때로 울음 소리가 안 들리게 몇 시간 동안 욕실에서 혼자 있곤 했다. 생후 2년 후, 복통이 완화되었고 삶의 질은 나아졌다. 그의 부모는 조지가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뻐했다. 조지가 2세가 되었을 때 가족은 미국으로 다시 이주했다. 엄마는 가족 외에 다른 사회적인 접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립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아빠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빠와 아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는 조지가 과학 도서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억했다.

조지가 4세와 되었을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는 동생의 출생에 대해 질투했고 동생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동생이 태어나고 큰 도시의 중심지로, 다시 이사했다. 조지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별인사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이 시기에 그의 부모는 그에게서 좀 더 반항적인 행동을 발견했고, 그들은 이것을 성격 요인과 형제간 경쟁 탓으로 돌렸다. 때때로 서로 마주칠 때 부모 자녀 간의 긴장이 두드러졌다. 부모는 조지에게 차분함과 편안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듯했다. 그의 엄마는 눈 오는 날 집에 가려고 애쓰던 것을 조지가 방해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일정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 그때 조지는 눈을 피내기 위해 구부렸고, 그녀는 격분했다. 발로 그를 밀어버렸고, 눈 속으로 그의 머리가 치박히게 되었다. 엄마는 조지가 그곳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차가운 눈 속에 비비는 상상을 했다고 말하면서 아빠와 함께 웃었다.

엄마와 함께한 조지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불쾌감, 긴장, 억제된